

인제

있는 말씀에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11장 28-30 제목은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은자의 생활이라고 합니다.

COME!

(서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서 <sup>hungry</sup> 굶주리고 <sup>thirsty</sup> 헐벗고, 질병과 <sup>suffering</sup> 고통과 죽음에서 <sup>sinners</sup> 죄악들을 불러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동정녀의 몸을 빌려 성신으로 잉태 하여서 유대국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시고 인생의 불쌍한 것을 기억 하시는 동시에 세상에 사람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I** 첫째 계과 천선이 되어야 합니다. 계과 천선이 되어야 합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함을 받고 속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다시 말 하자면 나쁜 사람이 조흔사람 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아버지를 차자 도라오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차자 도라와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러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 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부르신 예수께서는

기뻐 하실 것이며 또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평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무거운 죄짐을 벗겨주시려고 또한 평안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도 <sup>nevertheless</sup> 불구하고,  
 무거운 죄짐을 벗지 않고, 항상 이전대로 죄짐을 지고 있는 신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선교사가 평양에서 자동차를 타고 교회 방문을 갈 때에  
 도중에서 어떤 할머니가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할머니를 불쌍히 생각하고 자동차를 타시라고 하였읍니다. 이 할머니는 감사한 인사를 하고  
 타고 가는데, 선교사는 운전을 하면서 도라 보니 뒤에 앉은 할머니는 무거운 짐을  
 그대로 이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여보시오 짐을 내려놓으시오 무거운 짐을 이고 계시면  
 자동차를 한-효과가 업겠읍니다. 하였습니다. 할머니 대답은 배물만 타는 것도 감사한데  
 짐 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니 미안 하다고 하였습니다. 무려 뵈시다 짐을 이고 있으면  
 자동차 스백립이 좀 덜 놀릴까요? 할머니는 어리석습니다. 이 할머니 처럼  
 예수도 어리석게 믿는 신자가 있습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보면 모든 짐을 하나씩  
 맛끼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악과를 <sup>pick</sup> 따서 자기가 먼저 먹고 남편 아담에게 까지 <sup>with</sup> 먹이킨 후에  
하나님과 동등도 못되고, 평안도 오지않고, 고생이 시작되는 동시에 <sup>죄를 지은 사람이야</sup> 항송하고 달리어서  
또는 부끄러워서 나무 <sup>thicket</sup> 숲속에 숨어 있을때 <sup>hide</sup>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sup>모른</sup> 하시니, 아담이는 네- 하는 말이 <sup>smell</sup> 기우 <sup>hum</sup> 모기소리 만치나오는데, 두렵고 부끄러워서 숲속에  
숨어 있느냐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한 사람은  
두렵고 부끄러워서, 주앞에 가까이 못나오고 저- 뒤에 안갔다가 예배도 <sup>since</sup> 맞치기 전에  
아멘 하면서 <sup>올</sup> 나가는 부끄러운 신자가 이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sup>hidden</sup> 후더러 있습니다.  
아담 해와로 부터 <sup>honeyed</sup> 하나님의 말씀을 <sup>honey</sup> 불순종하고 <sup>betrayed</sup> 마귀의 <sup>er</sup> 강언 이설에 <sup>suffers</sup> 쫓아서 순종한후로  
오늘까지 인생들의게 모든 고생과 죽음과 멸망이 <sup>er</sup> 들류 <sup>er</sup> 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sup>being</sup> 누가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구세주 예수 외에는 구원해 주실이가 없을것이 <sup>er</sup> 몰시다  
~~크르나 부르심을 받는 우리는 다- 게라 천신~~ <sup>er</sup> ~~심령으로~~ <sup>er</sup> ~~예수께서 부르시는 곳까지~~

III 셋째로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만 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과 조심도 없이 부르는데 나아가서 실패를 당하고  
 혹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sup>㉞</sup> 육이오 사변전에 어떤 시골 사람이  
 오전에 동사일을 하고 집에 도라와서 점심 먹고 쉬는데에 친한 친구 한 사람이 와서  
 부를 때에 나아가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놀노가 자리 대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친구이지만은 공산당이 된 줄 모르고 따라가서 구타를 당하고 생명까지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교인지 사람의 교인지 ~~예수가~~  
 부르시는지 사람이 부르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박태선씨가 예수가 아니고  
 감람 나무가 아니옵시다. 수많은 교인들을 유혹하여 제산을 파괴 시키고 생활을  
 몰락게 하여서 지금은 <sup>㉞</sup> 박태선씨가 형무소에 가고 지혜있는 교인은 많이 도라옵니다.  
 청년한분 마태복음 24장과 24절서 25절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오 <sup>and world</sup>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러니서 큰 징조와 이상한 것을

보이고 유혹할수만 있으면 유혹하려니 그리스도가 들에있거하여도 나아가지말고  
방에있다하여도 믿지말나 했음이라 예수님외에 어떤사람이 이적을보이고  
징조를 나타내서 유혹을할지라도, 나가지말시다 생명이 위험합니다  
만일 나간사람이 있으면 속히도라오시오 생명이죽기전에 도라오시기  
바람나다 그리고, 표인은 예수의 말씀대로 생활하고 예수의 부르시는데로  
나아가시기바람나다 예수의 말씀<sup>과</sup> 성경말씀대로 믿고, 거짓선지 혹은사람의  
유혹을 받지마시오 아달해와의 생각을 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람나다  
하나님의 말씀을안듯고 뱀의 말을 듣다가 자기도 망하고 후생들까지  
범죄하고 죽게하였음이라 그름으로 예수에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다- 게라천신한 심령으로서 예수께서 부르시는 그자리까지 가까이  
드러가서, 사람의 말을 혹은 거짓선지자의 말을 들지말고 예수의말만  
듣고 그자리까지가서, 영원한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람나다

변하는 세대에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

히: 13장 8절

저가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읍니다. 이 말씀에 따라 "변하는 세대

에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

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계는 사회도

도덕도 정치도 생활습관도 아주 급속히

변해 갑니다. 과학자들에게 의하하여 1940

년에 처음으로 적은 원자를 발견한 후

5년 후인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란

곳에 세계 제 2차 대전에 종지부를 짓기

위해 원자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원자탄을

연구하 5년 동안은 원시시대에 사람들

이 불을 발견한 후 기관차를 발견하게

되는 오랜 세월 동안 변화한 것 만큼

이나 변한 시대라고 말하였읍니다.

그리고 1945년 이후 우리 사회는 말

할 수 없는 급속한 변화가 있었읍니다.

심장절개수술을 하고 인공위성을 만들어

서 달나라를 오고 가는 일은 옛날 일

같이 생각할 만치 급속히 변화하였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변하는 것에 대해 하

나의 병과 같이 되었읍니다. 무엇이 변

화하지 아니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

입니다.

정지할 줄 모르고 변하기만 하는 세

상에 그 무엇인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마침 히브리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토록 같으신 분" 이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변하는 환경 속에 살면서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  
 시기는 어려운 것 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이 변하는 것만을 보아 오고 들  
 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치 않  
 다고 하는 말을 들어도 믿어지지 아니  
 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  
 스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에 사실을 반대하고 지난 과  
 거의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며,  
 또 사회의 발전하는 변화를 무시하고

현재 속에만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쉽  
 나다.

기독교가 어느 나라에나 어느 동리에  
 나 처음 들어가서 핍박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그 지역의 전통에  
 변화를 가져오는 혁신적이라는 것 때문  
 이었음니다.

한국에도 기독교회가 들어와서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삼녀칠세부동석"  
 이라는 오랜 전통을 변화시켰기 때문이

었읍니다. 남자와 여자는 나이가 일곱  
 살만 되며는 학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고 했읍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와서  
 젊은 남녀 학생도 학교실에서 공부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옛날 여러분의 부  
 모님들은 예수를 믿으면 권통을 뒤집어  
 었는 것으로 생각하였읍니다. 변하지 않  
 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하였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에 급변하는 것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변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변하는 세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좋아합니다. 기독교는 변  
 하는 것을 고의로 피하거나 대항하거나  
 불쾌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85년 전  
 인 1890년에 처음 서울에 오셨을 때

연 세 대 학 과 이 화 대 학 이 있 는 신 촌 에 호  
 랑 이 와 풍 범 이 나 타 나 편 지 집 배 원 인  
 아 저 씨 를 가 끄 물 어 갖 다 는 기 록 이 있  
 음 나 다 . 1890 년 에 서 울 에 인 구 는 20 만  
 명 이 되 지 못 했 다 고 합 나 다 그 러 나 현  
 재 에 서 울 인 구 는 7 백 만 이 넘 으 며 매  
 년 자 연 증 가 하 는 수 호 만 도 20 만 명 이  
 넘 는 다 고 합 나 다 . 그 때 에 서 울 에 제 일  
 높 은 집 이 보 식 각 근 처 에 있 는 겨 우  
 이 층 집 이 었 다 고 하 며 , 또 한 서 울 거 리 에

No.

서 낮에 여자들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보신각 종이 울렸

고 그 때 여자들이 거리에 다녔읍니다

그리고 보신각 종이 울리면 남자들은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1890년 대의 서울 거리와 오늘에 서

을 거리는 너무도 다르게 변하여 졌읍

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2천년 대

에 한국 인구는 1억이 될 것이며, 그

중에 천만 명 정도가 서울에 살 것이

No.

라고 내다 보았으니 2년 후에는 서울  
 에 천만 명이 산다고 하겠읍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는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변화이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변화읍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변화는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일어나는) 생활에 혁명읍  
 니다. 많은 지식을 통하여 자연을 정복  
 하고 우주를 개발하기까지 이르렀읍  
 니다.

여러분들은 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하십니까? 발전이 없는 사람은 변하

는 것을 싫어합니다. 변하는 것을 싫어

하는 이유는 평온한 옛 것에 대한 위

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

로 변화를 싫어 하는 것은 위험한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과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잘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바다에 기어 다니는 "게"를 보십시오.

게는 몸에 충형을 취하기 위하여 작고

우묵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작은 구멍

안에는 얼마의 모래를 넣어서 기어 다

닐 때 이 모래를 통해서 바로 기어

가고 있는지, 꺼꾸로 기어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생물

과학자가 이 게에게 모래 대신에 쇠가

루를 넣어 주었읍니다. 그리고 이 게가  
 기어 다니는 곳에 큰 자석을 두었더니,  
 게들은 뒤집혀져서 하늘을 보고 발을  
 허우적거리고 있읍니다. 게는 인력에 의  
 해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자석이 끌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움직일 수 밖에  
 없었읍니다. 이 게는 뒤집혀 있으면서도  
 바로 서 있는 줄 알고 기어 다니려고  
 애를 쓰고 있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표준이 없이 그저

변화되는 것만을 좋아하여 무조건 변

하는 것만을 선택한다면 이 계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될 것 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

하기 전에는 죄에 힘에 의하여 모든

생각, 마음, 생 ~~후~~활이 뒤집혀져 있으면서도,

자신이 잘못된 마음, 생각, 생활을 알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무엇이냐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보려고

No.

합나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의 관계는  
 우주 만물의 인격에 관계에 움직이는 것  
 과 같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서 있는 것과 끼꾸로 서 있는 것과 물  
 은 것과 그릇된 것을 바로 알게 하시  
 는 분이심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않고서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으며 또한 좋은 변화나 나쁜  
 변화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가 없읍니다.

No.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좋은 변화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  
 분의 마음을 속을 좌우하는 거짓된 자식  
 에 힘에서부터 해방을 받아, 참된 인격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이끌  
 림을 받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때때로 생물학  
 자가 게 안에 모래를 끄집어 내고 싶  
 가루를 넣어 놓으면 우묵한 곳에 늘

간직하고 있는 것 같이, 마커가 사람들  
 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끄집어 내고 마커의 나쁜 마음을 한  
 번 넣어 놓으면 마음 깊은 곳에 오래  
 간직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이 한 번  
 들어 오기만 하면, 이러한 마음에서 벗  
 어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마치 게가  
 뒤집혀 있었으나 자신이 뒤집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마커에 속하여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나 그것이 나쁜 줄로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게가 바로 서려고 하면 무엇보다

도 이 우묵한 속에 들어 있는 쇳가루

를 제거해야 자석이 있어도 아무런 영

향을 받지 아니하고, 인력에 의하여서만

이 바로 설 수 있고 기어갈 수가 있

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바로 서려

고 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생각에

마커가 넣은 죄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No.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은 여러분  
 들로 하여금 잘못 선택을 하게 하며,  
 기꾸로 서 있으면서도 바로 서 있는  
 듯 생각하는 쇠가루를 가리켜 "죄"라고  
 하였읍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어떻게 하  
 면 제거하고, 죄로 인해서 오는 병을  
 치료하는 분을 소개 하였읍니다. 죄를 치  
 료하는 의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십

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면 그의 사랑의 인력에 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들이 바로 사고 변화에 바른 것  
 을 선택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란 인력에 사로 잡힐 때만  
 이 여러분들이 바로 세계 되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볼 수 있으며 다양  
 하게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에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준비를 갖출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급변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변하는 세상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도 또한 미래에도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심으로 우리의 길이요

진 리 오 생 명 이 십 나 다 .

No.

기 도 : 거룩 하신 하 나 님 아 버 지, 광 선 의  
 말 씀 으 로 우 리 영 혼 에 빛 을 주 시 고 우  
 리 에 게 힘 을 주 셔 서 지 혜 와 깨 닫 는 경  
 신 을 주 셧 사 오 니 광 선 의 거룩 한 말 씀 으  
 로 우 리 를 가르 쳐 주 시 고 우 리 에 게 영  
 원 한 생 명 의 말 씀 을 믿 는 믿 음 을 가 지  
 게 하 셔 서 주 원 에 이 르 는 지 혜 로 삼 아  
 주 시 읊 소 서. 우 리 주 예 수 그 리 스 도 의  
 이 름 으 로 기 도 하 읊 나 이 다. 아 멘 .



본문. <sup>북가 북음</sup> 10장 30-37.

제목 <sup>여리고로 가는 사람</sup> 여리고로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부터  
여리고를 향하여 <sup>가는 사람</sup>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강도를 만나  
재물과 옷을 빼앗기고 매우 많이  
다쳐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거리에 버려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세 사를 보면 1914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9년 동안 이러한 저동은  
역사에서 그 예를 차커 볼수 없으나  
세계는 두번에 이나 큰 전쟁을 하였

① 으면 이 <sup>외</sup>에도 부분적인 전쟁은  
해아릴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② 그리고 천지 시변이나 경제침황으로 반  
은 내로움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지구  
의 <sup>마지막</sup> 막을 고하는 <sup>행</sup> 특기에 덮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늘날과  
치 강도 단난 시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도 단난 시대에 사는 한사람임  
니다.

1919년 3.1. 운동 당시 <sup>위</sup> 동생과 함  
께 <sup>집대에</sup> <sup>우위</sup> <sup>있었</sup>을 <sup>니</sup>다. <sup>그러</sup> <sup>마침</sup> 일본 군인들이  
내 <sup>방</sup>에 <sup>가</sup>서 <sup>드러</sup> <sup>온</sup> <sup>것</sup>을 <sup>초</sup>원 <sup>모</sup>라 <sup>만</sup>세  
라고 <sup>부</sup>를 <sup>었</sup>을 <sup>니</sup>다. <sup>그러</sup>나 <sup>자</sup> <sup>는</sup> <sup>부</sup>사 <sup>하</sup>  
였 <sup>을</sup> <sup>니</sup>다. <sup>그</sup>후 <sup>19</sup>22 <sup>년</sup> 5월 <sup>에</sup> 평양시

③ <sup>에</sup>서 <sup>많은</sup> <sup>중</sup>국 <sup>사</sup>람 <sup>이</sup> <sup>하</sup>산 <sup>당</sup>하 <sup>는</sup> <sup>것</sup>을  
보 <sup>지</sup> <sup>하</sup> <sup>였</sup> <sup>을</sup> <sup>니</sup>다. <sup>그</sup>때 <sup>저</sup>는 <sup>불</sup>과 <sup>담</sup>장  
한 <sup>사</sup>이 <sup>에</sup> <sup>있</sup>었 <sup>으나</sup> <sup>유</sup>사 <sup>하</sup> <sup>였</sup> <sup>을</sup> <sup>니</sup>다.

1739년 9월 1일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제  
 형님에게 자동차를 보내려고 푸리스톤에서  
 유류으로 평안히 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구라파에서 세계제이차  
 대선이 처음 선물을 오늘사와 시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구라파에 있는 7백만명의  
 유대인 중에서 6백만명이 나살당하였습니다.  
 (4) 당시 죽은 이들 중 5,300만명이 유해 봉근에 처  
 (5) 안대하여 고생하였으나 저는 대항에서 공부  
 하였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특점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나와 같이 이라분들도 어려운 가운데서  
 무사한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 오늘날이 복잡한 세계는 철학으로써  
 (6) 인간의 존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유명한 동서양의  
 철학사들 중. 플라토. 공자. 등이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찾는 데 그의 의성을 바쳐  
 왔습니다. 그러나 근대의 철학사들은 인생의  
 존재하는 목적을 추구하거나 탐구하는데 있어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습니다.

즉 사물에 생명이 없기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서  
 떠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나 생명력이 있는 것은  
 학문으로 존재하고 생명이 갈급하여  
 요구하는 문제와는 거리가 점점 멀러가고  
 있습니다.

미주에 <sup>right</sup> 철학자 겸 유위사 죽은 이후에  
 근대이 철학자로서 근여함을 순 사람이 없으나

또한, <sup>다윈</sup> 고전적인 유리의 철학은 오늘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큰 새로운 여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존주의가 사람들의 새로운 관념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는 문제를  
직접 해설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주의  
도 문제만을 제시할 뿐이요 문제의 해설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리츨"은 말하기를 "전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하는 것 ~~을~~ 을 보아 하나님은 죽으셨다  
고 하고 사람은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를  
차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반대한 블라서의 실존주의  
철학자 SARTRE 은 말하기를, 만연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사람은 그 이유를 알도리가  
없으며, 사람은 생명도 이유 없이 받아  
야 하고 고통은 이유 없이 받아야 하고  
행복을 누리려 하더라도 그 이유를 찾을  
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이 이유를 묻지 마세요" "C'est la vie,  
C'est la guerre" 이와같은 사상에 여향으로  
"나에게 과거를 묻지 마세요"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대 환영 받은 시절을 기억  
합니다

사람이 만일 생명에 대하여 애착이  
없다면 철학이나 과학이나 물리나 정신  
이나 이성이나, 이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이  
사람에 마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할 것  
입니다

사랑은 여기고로 가는 길에서 개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사랑의 존엄성과 사랑의  
가치를 얼마큼이라도 발견함으로 기쁨을  
인간에게는 적당하다

사랑은 자기가 강하는 불행이라 생각할 수  
없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따라  
고통이 심한 사람과 심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 사랑들은 흔히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랑은 죄가 많고 적은 고통  
을 받은 사랑은 죄가 적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가 아닙니다. 「선로야에 낭래가 묻어  
치어 죽은 형이던 사람이... 죄가 더 많  
는 줄 아느냐? 더러도 이가치 많으면  
나 이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지 아니하겠 따으로 ~~부~~ 선하라 할 수  
없습니다. 도둑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  
줄 책망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짐승이고  
논리적인 면만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며  
실존주의는 논리는 무시하고 사선에 묻혀  
만을 취급함으로 유물주의 사상에 쉽게  
타락했습니다. 즉 고대 철학은 형이  
상학이서 길쳤고 실존주의는 형이하학  
에만 골짜입니다. 이들이라 인생  
문제에 대하여서는 만족한 회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본문에서는 사람이  
갈망하는 선존의 신학에서 우리에게  
만족한 회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 고전 철학은 제사장의 흥편을 묘사  
한 것이요. 선존주의는 레위사람을 묘사  
한 것이며 선존 신학은 사마리아 사람  
을 묘사한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선존 신학은 사람이 영혼이 이르러야 할  
곳을 위하여 준비하고 육신의 생활에  
고통을 해결하는데 노력하십니다.

영혼과 육체의 행복된 생활에 ~~이~~  
과롭게 하는 것을 없이 할 해를 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는 우리의 이웃  
에게 문제를 수는 것으로 마치고 말고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여 줌으로써 자라  
가는 보람을 느끼게 될 것 압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고전 철학사나. 선존주의 철학사들이  
두가지 위험에 너머지기 쉬운 것입니다.

1. 나와 같이 목사나. 철학사. 교육가 등이  
고전 철학에 속하거나. 제사장에 부류에  
속하여 사람에게 성신문제와 영적인 문제  
만을 치중함으로 논리와 형식에 사로잡혀

우리의 선존 문제와는 거리가 먼 정신적  
인 것이나 신비적인 사상에 넘어지기  
힘읍니다. 그와 반대로. 과학이나

경제거나. 의사들은 육체적인 면을  
만족케 하려 함으로 물질주의나 혹은  
유물론에 넘어진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과 육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영과 육은 다 하나님께로 부러 받았습니다.  
 영과 육이 평위에서 떠날수 없는 것은  
 관계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영이나, 육신이 한쌍에 고통이 맺어짐으로  
 완전한 기쁨은 누릴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랑의 생 육체의 병과  
 영혼이 구원을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동연하시하사] 병자에게 ~~부~~ 병을 낫게  
 하였다 하시지 안니하시고 "내 죄를  
 사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리고로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십니다. 이들이 육체  
 나을 치료하여 줄으로 우리는 만족하  
 시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영혼까지 보살피  
 고으로 하나님이 뜻을 순종하여야 할것입  
 니다.

이러분이나 나는 내 이웃이 누구나  
 도리 맏시다. 예리고로 가는 길에 나는  
 강도 만나지 아니하게 하신 이유를  
 널리 보지 맏시다. 오늘 이사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  
 시라니아 사람과 같이 행하라."  
 고 명령 하셨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문제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는 도외시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사장인 이강도 만난자의 불쌍한 모양을 보았으나 나는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이 다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느냐 하고 그저 지나 갔습니다. 레위 사람은 그 처절한 형편을 보고 멀리 피해서 왜소한 하고 지나 갔습니다.

이들은 강도만나 자의 육체적인 문제보다 자기의 종교적인 문제만을 생각 하였읍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강도만나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읍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를 개가 돼서 먹이는 사람이지만은 강도 만난것을 볼때에 먼저 상한 육체를 치료해 주고 여관에 맡기웠읍니다.

우리가 찾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병과 육체에 상처를 입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그저 지나갈수가 있겠읍니까?

분문에 나타난 비유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불쌍한  
죄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며  
그들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기까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우리보리  
만시라 예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만나리  
알이한 이유도 묻지 만시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기를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랑같이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와같이 귀중한 말씀을 공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갈수 있게 하려주시고  
예리고 길에서 강도만나자를 도와줄수  
있도록 사마리아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사람같이  
갈못을 베풀 위험성이 만사오니 이와같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신께서  
항상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누가복음 10장 30-37

제목: 예리고로 가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부터 예리고로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강도를 만나 재물과 옷을 빼앗기고, 매우 많이 마자서 거의 죽게된 채로 거리에 버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제는~~ 두 세계사를 보면 1914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50년 동안에 이러한 격동은 예전 역사에서 그 예를 차지 볼수 없습니다.

세계는 두 번이나 큰 전쟁을 ~~지나~~ <sup>나</sup> ~~가~~ <sup>는</sup> ~~고~~ <sup>고</sup> 계속해서 헤아릴수없이 ~~망망~~ <sup>있</sup> ~~합니다~~ <sup>습니다</sup>  
전쟁이

그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과 경제적 공황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sup>이러한</sup> 마지막을 <sup>이러한</sup> 고할수밖에 없는 핵무기 전쟁을 <sup>위협을</sup> 인해서 우리가 다 떨고 있지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늘을 가르쳐 강도 만난 시대에 사는 한 사람 <sup>입니다</sup>.

이라고 할수

1919년 3.1 운동 당시, 저는 동생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때 마침 일본 군인들이 내 방에 갑자기 드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독립 만세"라고 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그러나 원일인지 우리는 무사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무리카 아직 어린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나가버린 모양입니다.

그후 1932년 5월에 평양시에서 많은  
 중국사람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불과 담장 한겹사이에 있었으나  
 무사하였습니다.

1939년 9월 1일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제  
 형남에게 자동차를 보내려고 푸린스톤에서  
 뉴욕으로 평안히 갈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대에 구라파에서 세계 제 2차 대전의  
 처음 선물로 왓사와시에 폭탄이 떨어  
 졌습니다. 구라파에 있는 7백만명의  
 유대인 중에서 6백만명이 처참한 학사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서 9,300만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들이 육해공군에 입대하여  
 그 무서운 전쟁에 참가해야 했지만 저는  
 대학에서 무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 시책이 신학교에  
 갈 학생은 입대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이유로 이러한 특전을 받는야  
 하는 외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 여러분중에서도 해방이래  
 여러가지로 위험한 일을 많이 당하셨지만  
 지금 까지 무사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 하시리 ~~않습니까?~~ ~~아~~ ~~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세계에서는 철학적으로 인간의 존재에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인간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동서양 ~~은~~ 동고금을 통해서 유명한 철학자 중에 Plato나 혹은 동양의 공자 같은 이들이 자기의 여생을 바쳐서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목적을 차라보려고 애써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존재성에 필요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생명의 끝 ~~을~~ ~~나~~ ~~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모든 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였으나 성공 ~~한~~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 철학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믿음과 소망 사랑의 길을 떠나서는 생명력이 있는 살미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가 요구하는 영생의 길과는 너무도 거리가 머러 ~~고~~ ~~있~~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철학자 John Dewey가 인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했으나,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근대에 철학자들이 인생 문제를 연구하기에

여러가지 ~~비~~방법을 사용 하였으나 이 문제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것을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근대 철학자중 실존주의 학파가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인생들과의 관계되는 문제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여러가지 학설을 제창하여 사람들이 ~~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sup>그 철학자들:</sup>  
(그러나) 그들이 여러가지 문제 만을 보이었을 뿐이요 이 문제의 확실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독일 철학자 Ritschl은 (말하기를) "전 세계가 큰 고통과 환란을 당하는 것을 보~~고~~고,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죽으신 이유를 차자보아야 한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관서의 ~~유명한~~ 철학자 Sartre 는 말하기를 "Ritschl의 말과 같이 만일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도리도 없으며 ~ 따라서 인생이 이유 없이 생명을 가지어야 하고 행복이나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 이유 여하를 차려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을 보면, 유명한

학문이나 철학이 인생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유행하는 말 중에 나에게 이유를 묻지 마시요<sup>7</sup> 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한 세상을 <sup>1</sup>되어 가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sup>1</sup>이라는 생각입니다. [불란스 말 중에, C'est la vie, c'est la guerre 이란 말이나; 또] 스페인 말의 Que sera sera<sup>1</sup> 라는 말의 뜻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인생에 복잡한 문제를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수없으므로 우리는 그날 그날을 <sup>1</sup>지키면서 ~~그말~~ 사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살미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사람에게 만일 생명에 대한 귀한 목적이 없다면 긴장한 희망과 행복을 가질수도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들린 운명이나 이성의 가량이 기위바 <sup>1</sup>명예를 이용하여 마음의 만족을 구한다 <sup>1</sup>절대로 얻을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에야 사랑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ive tend 불행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무슨  
 to commit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suffering 생각하나다. 이와 같은 다른 사람  
 sm 의 불행을 볼때에도 그 사람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렇게 큰 고통과  
 불행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시기를  
 신로함에 당대가 묻어져서 치어죽은 열여덟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은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고로 가는길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을라고 해서 죄가 없거나  
 다행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줄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서 인생들이 갈망하는 생의  
 만족한 대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뜻을 보면 예수님께서서  
 비유하신 제사장은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만을 생각하고 육체적인 문제는  
 도외시 하는 편이 옳고 레위 사람은

반대로 육적인 문제만을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는 도외시 하였습니다.

이들은 강도 만년자의 문제보다 자기들의 종교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였습니다.

제사장은 강도만년 불쌍한 사람을 보고 생각하기를 나는 제사장이요 의사가 아니니 어떻게 귀찮은 사람을 도와줄수가 있느냐 하고 그쳐지나 같으며 레위 사람은 차츰후한 형편을 볼때 이해 타산이 생각 밖으로 모분해하고 지나갔음이다.

우리는 이두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비웃지 않이 하니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운데도 목사. 교사. 도덕가. 철학자등이 속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정신 문제만을 취급함으로써 형식과 논리에 노예가 되어 잠정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잠정적인 문제만을 취급하여 신비주의에 흐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의사 경제가. 과학자 체육가 등에 속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같이 자기에 안일을 위하여 사람의 정신문제와는 하등에 관계가 없는

물리적인 도움을 위하여 ~ 골몰함으로  
유물주의 ~ 사상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다 하나님께로  
부러 바치는 것임으로 영혼이 더러하고  
육체가 더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영과 육이  
나누워 질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중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다리고 ~ 오셨을 때 "네 병을 낫게 하셨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네 죄를 사하셨다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강도 만만자 중에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요구하는 수요가  
100명중에 83명이고 육체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의 수요가 100명중에  
60명이라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너가~~ 함하여가는  
우리들은 네가 도와줄 이웃이 누구  
인가를 무려보지 맙시다.

우리애 눈앞에 보이는 이사람이  
바로 우리애 이웃이요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계사장이나 레위사람 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진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같이 과단심이 있는 행동으로  
불쌍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친히 도와주며 그의 영혼과 목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전하기까지  
돌보아 주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애 기독교인은 계사장에  
적분이나 레위사람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사명을 이행할수 없습니다.

이해를 먼저 생각지 아니하고  
한사람의 생명이 천하를 주기도  
받지 못할 것을 깨달아 많은 한-  
마리에 양을 차차 희생하고  
봉사할때에 그리스도인의 빛이  
나타 날수가 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  
다시 물어보지 맙시다.  
나를 여러교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나지 아니하게 하십 이유도  
다시 물어보지 맙시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도 가서 이성경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순종할 마음을 굳게  
타고 하여 예수님의 뜻을  
이행하십시오.

따 같이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중한 말씀을  
들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수 있게 하여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할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같이  
갈못을 베풀기 위하여 성이 반사오니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신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할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일치

오늘 제 65회 총회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교회의 일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일년전 64회 총회 때에 "가장 큰 도전"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아시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선교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아시아  
대륙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 대륙은 가장 넓은  
대륙이지만 가장 적은 수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또  
하나의 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외적으로는 선교에 대한 도전이며  
내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도전입니다.

분열된 기독교인이 사회의 일치를 부르짖으면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일치"  
하지 아니하면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외치는  
것이 헛된 일인 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교회에 가장 심각하게 도전해 오고 있는 교회의  
분열을 막아야 합니다.

홍익성 - 업나다

we find

The passages of Scripture  
open to us about their  
position

우리는 이 문제를 다음 두곳의 성서 본문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1 John 4: 7, 20.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what God is. He who  
loves God and keeps his  
commandments

첫째는 또한 성서 사랑 관련과 이십팔 말씀으로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영우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  
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 - 미워하는 - 사랑은 거짓말 같이  
입니다. 눈에 보이는 - 형제들 사랑하지 않는 자  
러떻게 보지 않는 자 믿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록된 말씀이요

1 John 5: 20. Let all  
2. people who do not  
know the Father

if you do not know  
the Father, and did not  
hear His voice

다음 한가지 본문은 아가복은 팔십 삼십육절에  
"사랑아. 온 세상은 영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  
입니다. 이 본문은 개빈에게 적용하기  
보다, 한국교회에 적용할 때 주의적.을 우리에게  
오는 도전들 신감 말 - 수 있습니다.  
즉 한국교회는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온  
세상은 복음화 하라고도 한국교회 자신은  
형제 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라는  
말씀은 심각한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I have three  
goals to make every  
challenge.

이 도전에 대해 본인은 매번 흥분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Chloe is much  
and we have failed  
before

첫째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은 복음의 열매  
실�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교회가 싸움만이 기쁨이며 분리를  
우리의 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는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The focus (the) that  
quality is less than  
... in the world

둘째 장로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많은  
분리를 경험하며 왔습니다. 물론 한국 장로교회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당시 교회의 부흥은  
있었습니다.

영동 출신의 목사 장로인 Stephen Heil은 교회에서  
장로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분리를 더 많이  
개 광하고 경험하였는바

이러한 장로교회 분리를 감시 생략해  
보려고 합니다.

The reason that's going  
to be the only  
... but I'm also  
... and ...

장로교회는 사역에서 가장 큰 성공을  
바지만 또한 가장 분리를 경험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The focus is about the  
... to a great degree.

영동 출신의 다른 장로교회에서 장로교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입니다.

These are denominational split - but even the denomination are divided. SDA & Holiness - each split in two. Baptists are divided 4 way, Pentecostals 6.

물론 같은 이름 같은 교파이지만 그들은 같은 교파가 아니라 다른이서 있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공회와 성결회는 두 종류를 분명히 되어 있는데 침례교회는 세 종류이며, 오순절 교파는 여섯으로 분절되어 있다.

본문은 각 교파가 갈라진 사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But we look for more and most of all. 14? 20?

평생의 주의 강요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가면 영 영의 교파를 나누어서 잊고 버리면 나쁜게 나가면 이성이 교파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 모든 교파가 분할될 때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아래서 분할이 되었을 것이다.

주의 이름에서 기독교 강요회 혹은 예수교 강요회를 갈라 놓아야 할까요?

What other paths in present & future.

이런이 같은 강요교회가 동성애를 많이 버리고 분열을 거듭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But still we look for more. 14? 20?

그러나 지금은 같은 강요교회는 하나가 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But America is just the same.

사실 기독교회는 어떤 것이 없거나 이교도 같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있는 것이

그 중에는 4천 오백만의 신도를 가진  
 로마 가톨릭교회가 있지만, 신약 성경이  
 남침례교, 구약만 명이 ~~한~~ 연합 침례교가 있  
 하면, 한 한개의 교회에 200 명의 신도  
 가진 교회가 수백개  
 있는 것은 사실이다. "침례" 용어  
 또한 단 23명의 신도를 가진 불문교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독특한 교파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교파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을 죄악시 해서,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침례교파" 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더 많은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이십이개 교파로 나뉘어져  
 있으며, 침례교는 이십팔개 내지 삼십개 교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 인데 갈라져 있다는 사실은 가슴아픈 일입  
 니다.

교회가 이 세계에 선교 사업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 해 나갈지라도 우리 모두가  
 일체 됨을 잃어버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은 천하의 일고도  
 라인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하나의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In USA, Baptists are  
 even more divided than  
 Presbyterians.

This is the painful  
 reality of our divisions in  
 the body of Christ.

If we thus lose our  
 unity in Christ, no matter  
 how successful we may be  
 in missions, our Lord will  
 be saying to us, "What  
 is it that profit us if we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our soul?"

Church unity is a command  
we have to obey.

Some may say

불려, 교회의 일치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의 명령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라~~ 분리되는 것이 죄악  
 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견해가 전적으로~~  
~~올라고 말 할 수 없는가?~~ ~~외냐하면~~

신약시대에도 교회는 분열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과 파와 베드로와 그리고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서로가 전술한 그리스도라고 주장했~~ ~~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바울의 추종자들이 대항하여  
 유다를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Others Paul still considered  
true church.

그런데 오늘의 교회만이 죄악이 될 것이겠  
 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갈라졌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갈라지게  
 되더라도 괜찮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은은 이러한 ~~생각을 인정 해주었습니다.~~  
~~교회는~~ ~~분열 이후 항상~~ ~~분열을~~ ~~예상하여~~ ~~왔습니다.~~  
~~그리스도~~ ~~께서~~ ~~분열은~~ ~~인정~~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의 분열을 위해  
 교회를 창시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

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Concord was divided. But Paul rebukes it for its divisions. "Is Christ divided." All these scriptures the unity of the church is declared and taught. The church is "the body of Christ." He had can have but one pure body. It is also "the body of Xp." One head can have but one body. Xp. is not a many-headed monster. 1st Cor. 12:13 "There is one Spirit."

다시 말씀드리셔 고린도 교회는 갈라졌읍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 분열을 합쳐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강조하엿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분열케 하였느냐?" 고 반문하섯읍니다. 성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단일성은 강조가 되고 잇읍니다. 그리고 단일성을 가르쳐 주고 잇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늘의 신랑 역시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이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의 지체의 하나의 머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여러 지체를 가진 괴물도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4절에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고 썼읍니다.

Our forefathers in the faith recognized this truth. Worked for unity. Calvin's Zwingli. 1529 2. Luther met at Marburg.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진리를 믿어 왔읍니다. 칼빈이나 츠빙그리도 당시 장로교회의 분열에 대해 기도하고 노력을 하엿읍니다. 1529년 츠빙그리는 루터파와 재연합을 추구하는 대회를 열것을 요청하엿읍니다.

그래서 루터와 츠빙그리는 마부르크에서 만났읍니다. 루터교와 장로교에서는 15개항의 차이점을 열거하엿으나,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많은 차이점이 해소되엿읍니다. 한주간의 심각한 신학논쟁이 끝난후, 루터교와 장로교에서는 단 하나의 상이점만 남기고, 14개항은 일치점을 보았읍니다. 하나의 상이점이란, 성만찬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빵과 포도즙이 무엇을 나타내느냐? 엿읍니다. 그들은 비록 포도즙에 대해서는 별 차이점을 못 가졌으나 다만

빵에 대한 해석이 문제였읍니다. 장로교에서는 빵을 오로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본격하며 "아니라" 하엿읍니다. 루터는 문자적으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섯잖았느냐? "고 주장하엿읍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와 루터교는 이 문제점에서 바로 일치를 보지못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 때문에 9천만의 루터교인들과 6천만의 장로교인들이 세계 각처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루터와 츠빙그리가 만나서 논쟁을 벌이다가 끝이났을 때, 츠빙그리는 루터에게 악수를 청했으나, 루터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나의 같은 견해를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우정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성서는 교회의 단일성에 대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진리 이상으로 어떤 단일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루터가 주장하는 것을 성서의 권위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루터의

We cannot criticize Luther for his insistence on the authority of Scripture. We can even respect his defense of his own interpretation. The Bible does not teach that unity is more important than truth. Rather, that we must hold the truth in love. Eph. 4:15.

성서적 주장에 존경심을 보냅니다. 성서는 진리 이상으로 단일성이 중요하며 우리의 죄는 악수를 거절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일 것입니다.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A 교회를 향한 성서적 도전은 에베소 4장 15절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면에서 라라나, 여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처럼 사랑의 잔치를 소유하는 것 이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65화의 총회를 맞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루터가 악수를 거절함으로써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죄를 범한 것 처럼 우리도 그런 과오를 범하기 쉬운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한 도전은 바로 성서적 도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곧바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정신안에서 한마음으로 복음을 믿는 일에 힘을 합하여 싸우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If we miss this challenge.

3. 끝으로 교회의 단일성을 위한 도전은 곧 선교의 도전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ve been speaking in two challenges: great and deep, mission and unity. But they cannot be separated. If we fail in unity we will fail in mission.

지금까지, 본인은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도전을 이야기 했을지라도 그중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으로서 그것은 곧 선교의 도전이며 가장 심각한 도전은 곧 교회의 단일성인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도전과 가장 심각한 도전은 사실상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일치성을 보지 못하면 선교도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갈라치고, 중상모략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과 평화를 세상에 믿으라고 어떻게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If we are continually fighting & slandering each other, how can we expect the world to believe in Jesus & have their salvation in X? Bp. Aronch of Dornakal met Dr. Ambedkar leader of India's outcasts.

1935년 인도의 첫 성공회 감독인 Dornakal 의 Azariah 은 힌두교에서 떠난 인도의 수백명의 지도자 Amedkar 박사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Ambedkar 박사는

셋째, 일치란 이/나라의 <sup>hope</sup> 열원이며  
 교회의 소망입니다. 만일 기독교인이  
 서로를 서로를 비방하고 싸움만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와 이 세계에 ~~평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와 사랑과 일치와 구원의  
 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약 500년 전에 인도에 있는 성공회의  
~~감독~~ Dornakul 에 있던 Azariah 감독은  
 힌두교에서 떠난 인도의 지도자인 Ambedkar 박사와  
 만났습니다. "수백명의 추방당한 자들의

그는 힌두교의 사회정책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독은 그 지도자에게

"당신은, 당신의 민족이 힌두교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있 ~~않~~ 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없이 살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sup>힌두교</sup> 보다 나은 것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공회의 감독은 Ambedkar 박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하였습니다.

~~영광~~ Ambedkar 박사는 "나는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일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추방당한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인도 전역에서 하나의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은 곧 우리의 일치입니다.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읍니다.

이 성공회의 감독은 인도에서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심했는지 잘 알고 ~ 있었기 ~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읍니다.

기장 심각한

이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분열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임을 인식 하고 ~~회개~~ 이 나라에서 분열을 몰아내시다.

또한, 우리 모두가 또한 사도들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 하는 것을 배워 오도록 합시다.

사랑 가운데 교회가 일치 하는 곳에 남한과 북한이 함께 모이는 통일을 갖어 오도록 날마다 기도 드립니다.

그러하여 우리 모두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사랑의 하나님" 이시며 "평화의 사자" 왕중에 왕이신 <sup>우리 예수 그리스도</sup> ~~주~~에게" 알렐루야를 높이 찬미 합시다.